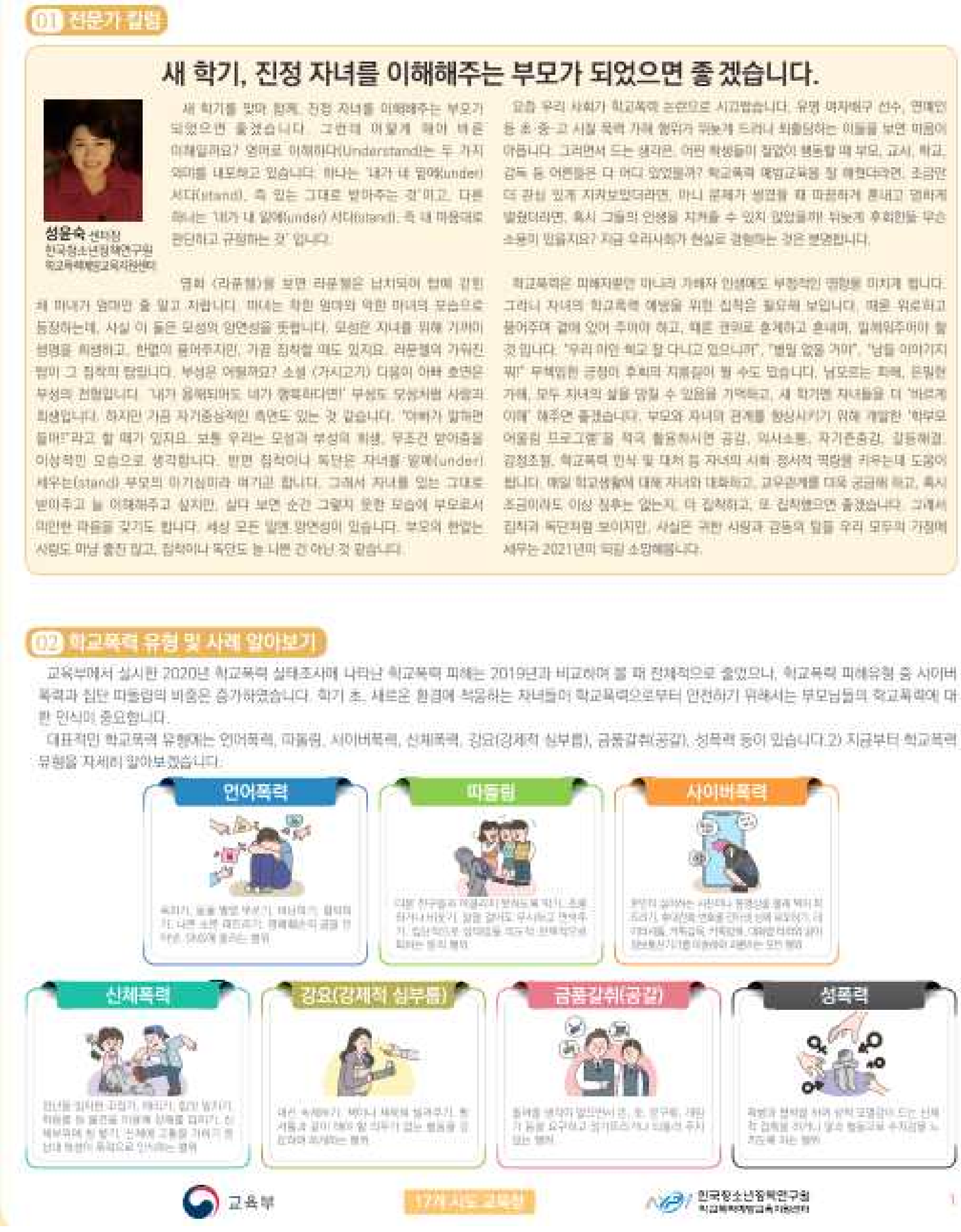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가정통신문

제2021-000호 ■ 담당부서 : 학생자치부 ■ 담당자 : 이청원 ■ 연락처 : 031-8014-1583

모든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01 전문가 칼럼

새 학기, 진정 자녀를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숙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진정 자녀를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른 이해일까요? 영어로 이해하다(Understand)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네 밑에(under) 서다(stand), 즉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 내 밑에(under) 서다(stand), 즉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 입니다.

영화 <라푼젤>을 보면 라푼젤은 납치되어 탑에 갇힌 채 마녀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랍니다. 마녀는 착한 엄마와 악한 마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둘은 모성의 양면성을 뜻합니다. 모성은 자녀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희생하고, 한없이 품어주지만, 가끔 집착할 때도 있지요. 라푼젤의 기다란 탑이 그 집착의 탑입니다. 부성은 어떨까요? 소설 <가시고기> 다움이 아빠 호연은 부성의 전형입니다. '내가 용해되어도 네가 행복하다면' 부성도 모성처럼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지만 가끔 자기중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말하면 들어!"라고 할 때가 있지요. 보통 우리는 모성과 부성의 희생, 무조건 받아줌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집착이나 독단은 자녀를 밑에(under) 세우는(stand) 부모의 이기심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늘 이해해주고 싶지만, 살다 보면 순간 그렇지 못한 모습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없는 사랑도 마냥 좋진 않고, 집착이나 독단도 늘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유명 여자배구 선수, 연예인 등 초·중·고 시절 폭력 가해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퇴출당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린 학생들이 철없이 행동할 때 부모, 교사, 학교, 감독 등 어른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잘 해줬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았더라면, 아니 문제가 발견될 때 따끔하게 혼내고 엄하게 벌했더라면, 혹시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요? 지금 우리사회가 현실로 경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착은 필요해 보입니다. 때론 위로하고 품어주며 곁에 있어 주어야 하고, 때론 권위로 훈계하고 혼내며, 일깨워주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아인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남들 이야기지 뭐!" 무책임한 긍정이 후회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피해, 은밀한 가해, 모두 자녀의 삶을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새 학기엔 자녀들을 더 '바르게 이해'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자녀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학교생활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고, 교우관계를 더욱 궁금해 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는 없는지, 더 집착하고, 또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착과 독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한 사랑과 관심의 탑을 우리 모두의 가정에 세우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02 학교폭력 유형 및 사례 알아보기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는 2019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학기 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에는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강요(강제적 심부름), 금품갈취(공갈),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2) 지금부터 학교폭력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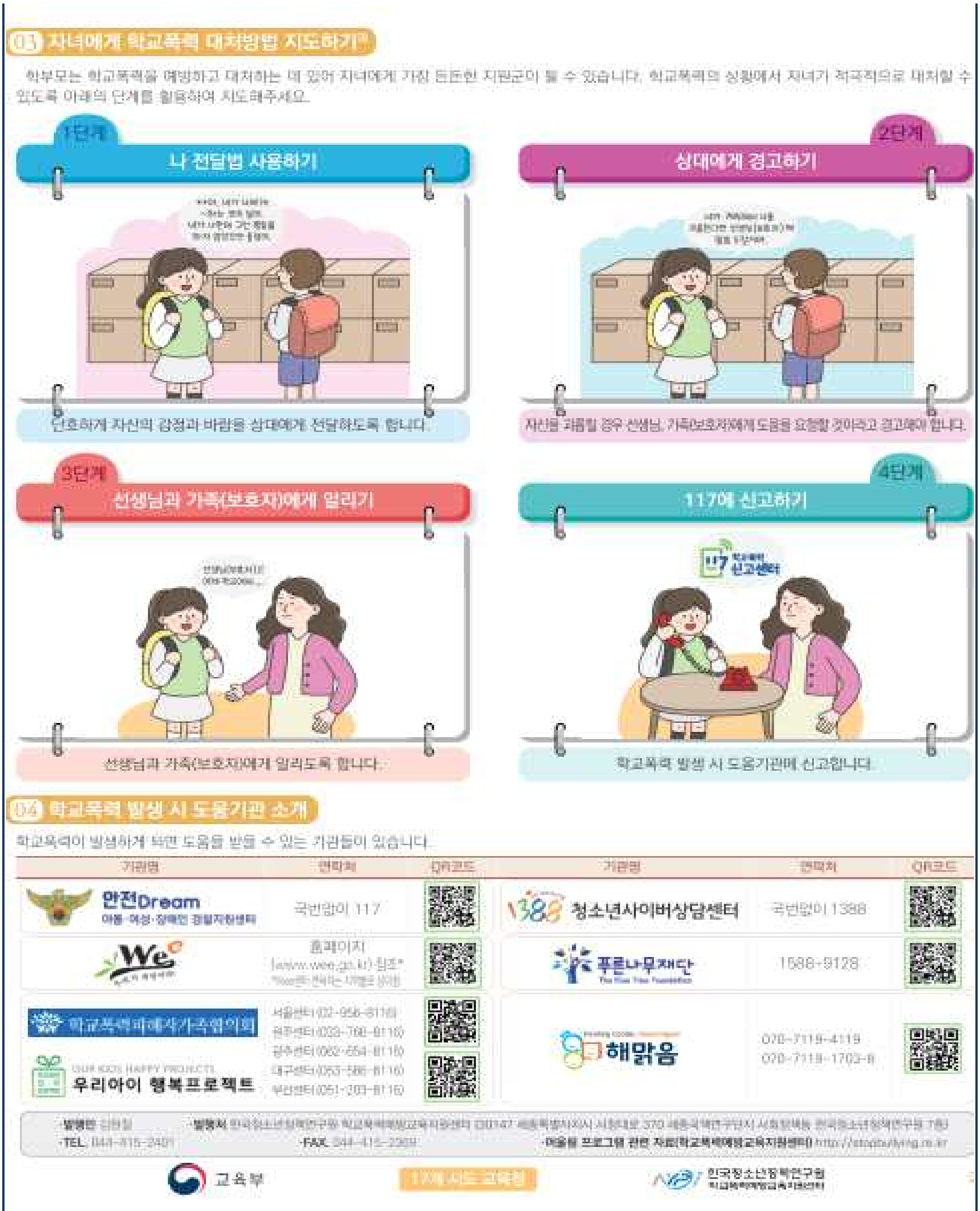
신체폭력

강요(강제적 심부름)

금품갈취(공갈)

성폭력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03 자녀에게 학교폭력 대처방법 지도하기[3]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상황에서 자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의 단계를 활용하여 지도해주세요.

1단계
나 전달법 사용하기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상대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2단계
상대에게 경고하기

자신을 괴롭힐 경우 선생님, 가족(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3단계
선생님과 가족(보호자)에게 알리기

선생님과 가족(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4단계
117에 신고하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기관에 신고합니다.

04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기관 소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QR코드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We	홈페이지 (www.wee.go.kr) 참조* *Wee센터 [illegible]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OUR KIDS HAPPY PROJECTS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서울센터(02-956-8116) 원주센터(033-762-8116) 광주센터(062-654-8116) 대구센터(053-586-8116) 부산센터(051-203-8116)	

기관명	연락처	QR코드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1388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1588-9128	
Healing Center Haemalgeum 해맑음	070-7119-4119 070-7119-1703~8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TEL 044-415-2401 ·FAX 044-415-2369 ·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자료(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topbullying.re.kr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된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입니다.

2021년 4월 9일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장